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7호 [루게 제24885호] 주제 104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디마스끄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귀국민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수리아독립 6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내외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로를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령도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연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4 (2015)년 4월 15일 평양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4권 출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104권을 출판하여 내놓았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조국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전하는 18건의 회상실기가 편집되어있다. 회상실기 《영웅으로 키워 내세워주신 아버지손길》, 《영예군인당일군으로 내세워주신 은성》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어느 한 인민군전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신 몸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전진영예군인을 당책임일군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의 고매한 품모를 담고있다. 이렇듯 성악배우를 천리마 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의 가수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가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한 긍지안고 부강조국건설에 더 큰 박차를!

축섭전역에 세차게 내려치는 단숨에의 기상

과학기술전당 지상골조공사 활발, 호안증축 및 방수벽
공사 결속, 부속건물, 다리기둥건설성과 확대

축섭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참가한 부대군인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대충과 높은 지상건물골조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호안증축 및 방수벽공사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불같은 공격진을 틀어쥐고 많은 공사를 결속함으로써 축섭전역에서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하는 자랑을 펼치였다. 여러 단위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부속건물과 뿔프장들, 인입다리기둥기초공사에서 두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는 건설장에서는 지금 이달안으로 구획별원형형상과 지대정리를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소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섭개발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지난 2월 이

곳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현이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축섭에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은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웅대한 창조물과 대비할 수 없는 대단히 웅진한 건축물이다. 원형축면적이 10만㎡에 달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일떠선 인민대학습당의 비동한 건축물로서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워야 하는 아찔한 건설대상이다. 건설의 지도밑에 중앙지휘부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시공력량과 건설자재보장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전반적인 공사가 대상별, 날짜별로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있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건설기계와 공사자재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속도에 축섭전역은 분화구를 띤 활화산마냥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건설의 주타격대상인 기본건물골조공사장에서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공사를 맡은 부대지휘관들과

토착업과 장식쟁기, 상판콘크리트기기를 단숨에 해체하고 설들메를 천도개벽시키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본받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분수풍인과 혁명사적지관리소건물을 비롯한 건설대상들에 공사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철도성과 수도건설위원회, 특혜운성이 맡은 축섭인입다리 건설장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철도성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불가항력을 모르는 조선로동당의 기상과 본래로 다리기둥형성을 위한 가름막이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3월 전투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데 이어 당면한 침강공사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로신이 제일 긴 인입다리를 맡은 특혜운성이 맡은 단숨에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단숨에의 기상과 본래로 다리기둥형성을 위한 가름막이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3월 전투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데 이어 당면한 침강공사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는 군인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축섭의 모습을 하루하루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 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풍요한 다시마작황 마련

구미포 바다가 양식사업소에서

구미포바다양식사업소의 양식장들과 포구마다에 《바다만풍가》의 노래소리 드높다.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지난해보다 양식장면적을 100정보나 더 늘리고 풍요한 다시마작황을 마련하여 정보당 평균백수실의 수확을 내다보고있다. 특히 수확과 높은 우량종종의 다시마가 3m이상 수성하게 자라 바다물색은 진한 밤색을 띠고 양식장의 메줄이 늘어질 정도로 수확량은 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양식장에서는 양식공들이 결사적으로 일군을 다그치며 하루평균 백수실의 다시마를 수확하고있다. 맛 좋고 건강에 유익한 다시마를 지금 거두어들이는속속 각지에 보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뜻이 들어서야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면밀한 작전을 펼치였다. 뚜렷한 목표에 당, 행정일군들은 띄우개와 바줄생

생산공정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청진화학설비 유공장에서

청진화학설비유공장에서 인건발표생산에 대한 현대화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전의 넓은 공정을 통째로 들어내고 새로 확립하는 인건발표생산공정이 꾸러지면 년간 천수톤의 인건발표와 수백톤의 종이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이 생산되어 화학설비유공발전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대형 및 중형설비들의 해체와 이설, 백수십㎡의 막돌채취와 기호조성다짐, 수백㎡의 버려져 리작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나고 20여개의 탱크들이 제작 및 설치되였다. 또한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90여대의 설비들을 제작하여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공장책임일군들이 공사현장 위대한 령도 하에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닐론, 스프, 인건설, 아닐론을 비롯한 화학설비를 넘쳐 생산하여 방직공장들에 넉넉히 대주어야 하겠습니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진화학설비유공장조감도와 화학설비유공

품을 보시면서 공정에 팔프생산공정을 꾸린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정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인건발표생산공정을 일떠세우 시공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로 천수백의 능력을 가진 인건발표생산공정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에 한사칼같이 떨쳐나섰다. 공장참모부에서는 공사의 순차에 따르는 단계별목표와 일정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 해나가고있다. 공장책임일군들이 공사현장에서 화신적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총화와 평가사업을 따라세우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정신력발달을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기본법칙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대충의 정신풀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들

밀보리심기 한창

량강도에서

리씨부리기를 일정에획대로 내밀고있다. 군의 총장에서는 씨부리는 시기와 토양조건, 품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군적인 밀보리씨부리기실적은 80%정도를 넘어서었다. 대충단에서는 기계화수단을 집중하여 밀보리씨부리기에서 대충단식화농업의 요구를

레기기를 앞세우면서 밀보리씨부리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해산시의 김경숙군에서는 씨부림전적으로 따르는 종자확보와 종자처리기술을 높여나가고있다. 현에 이어 포진같이 전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에 밀보리씨부리기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풍서군에서는 일기조건을 잘 타산하면서 적기에 의탁당 다그쳐 끝낼 계획인데 밀보리씨부리기를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올해에 거머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벼모판씨부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80평생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83(1994)년 7월
주제 65(1976)년 9월



황해제철소 노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8(1959)년 9월

2. 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10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50(1961)년 12월



강서군 청산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7(1958)년 10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타고 평양시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1(1972)년 4월

평양산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9(198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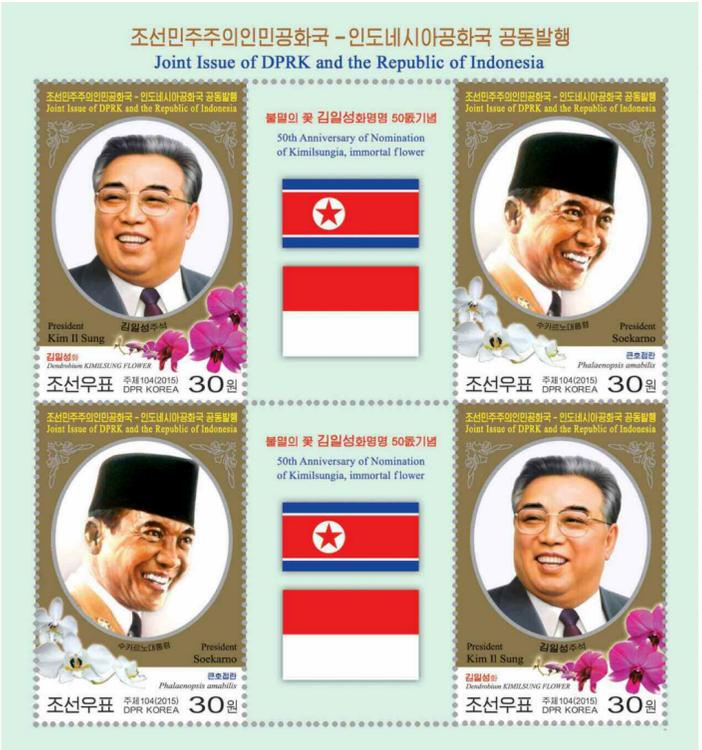
바다가양식을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76(1987)년 11월

남포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어로공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9(1960)년 10월

새로 만든 모래는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63(1974)년 5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더불어 태양절은 영원하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 공동우표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공동우표 2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초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의 초상이 형성되어 있다. 공동우표는 인도네시아에서 육성되고 오늘 진보적 인류의 지성에 떠받들려 온 세상에 만발한 진귀한 꽃과 더불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 두 나라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칭송의 열기가 온 누리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는 속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재중조선인들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 일군들과 중국에 체류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김립속문중학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3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뜻깊은 이 시각 저희들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로운 조국으로 달려가고있으며 수령님들께서 그로록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업무를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심으로 뜨겁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무적월성의 탁월한 선군령도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강성변영위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대통운의 날이며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일대 사변적인 날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혁명과 만고공상을 헤치시며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혁명전통의 만년태보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도 승연한 조종의 산, 백두산의 줄기줄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한세기에 강대한 주체국주의를 타당하시여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강철의 명장시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승려업되는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회세의 대정치원로이십니다.

20세기 정치무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 위업에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만고의 업적을 쌓으신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대없는 행복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타항만리에서 땅국의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재중조선인들을 한몸에 안아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적사업에서 자기의 민족적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로 줄기줄기 흐를수 있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길이 빛나고 조국방위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으며 중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조선공민권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가슴가득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멸불후의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계십니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을 초강경조치로 산산이 짓부셔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시여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재중동포들을 잊지 않고서 조국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꼭꼭 불러주시어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우리 재중대표단원들이 올리는 소박한 말도 경청해 들어주시며 사랑의 기념촬영까지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우리들은 천년이고 가고 만년이고 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재중조선인들의 가슴가슴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원수님의 명도따라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적사업에 한몸 다 바치려는 애국충정으로 불타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조선의 고귀한 혁명전통이 마련된 항일혁명전투에서 사는 재중조선인들답게 항일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정성다해 보존관리하고 절제위업들의 위대성을 동포들속에 널리 선전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믿고 따르는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흔들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서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념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조국의 부강변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게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6일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선군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만년태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업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우리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에 앞장서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모신 흠에 들어섰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 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업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토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자가 있어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우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태양칭송의 노래, 대고조전가를 더욱 힘차게 울려 갈라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경제선동활동 진행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6일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우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일떠서고있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은 축전참가자들은 격심없는 공연무대를 펼치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격동적인 공연으로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을 고무하였다.

내명중양에술선진대, 평양시 예술선진대 예술인들은 내성중창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별처럼 산적이로다》, 노래이야기 《그 마을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이야》, 혼성중창 《사랑담친 내 나라》, 혼성중창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풍물들을 무대에 올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판필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출연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온 인민군인들의 헌신적투쟁정신과 위훈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절도에술선진대에서 출연한 혼성중창 《우리 앞날 밝다》, 녀성중창 《당기어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의 풍물들은 군인건설자들로 하여금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인본때, 군인이기대로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선군혁명의 기수, 주체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열의로 가슴 끓여오르게 하였다.

우리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제화구상에 의하여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고있는 축성을 혁명적기백과 열정이 융합되어 한 공연은 건설자의 전투적본위를 한층 고무시켰다.

인민예술축전참가자들의 힘 있는 경제선동활동은 인민군대의 단숨에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총정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릴 일념에 넘쳐있는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이 경모의 정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조로친선관계 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업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에 들어선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주바위까지 쉬레스타 네발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만경할 때마다 한편 이날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을 위한 연회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대표단 도착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대표단 도착

백두산절세위업들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주바위까지 쉬레스타 네발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만경할 때마다 한편 이날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대표단을 위한 연회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인디아를 공식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상일행 귀국

인디아를 공식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상일행 귀국

인디아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던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16일 귀국하였다.

레바논과 수리아에 갔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레바논에서 진행된 세계민주청년동맹 총리사회 회의와 수리아에서 진행된 수리아혁명청년동맹 제9대회에 참가하였던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 대표단 만경대 방문 (Left)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Right)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당과 국가의 은덕으로 새 교복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쳐있는 학생들과 인민들

어머니당이 교마워, 우리 제도가 교마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었습니디.》

뜻깊은 올해의 새 학년도를 앞두고 전국의 소학교인민들에게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고 태양절을 앞두고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도 새 교복을 안겨준 당과 국가의 크나큰 은정은 온 나라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육자들과 인민들을 끝없는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김정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새 교복을 받아안고 교마움과 기쁨에 넘쳐 웃고 눈물짓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만들어 입히는 사업은 아무리 어려워도 죽어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셨으며 중대사로서 내세우고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교복생산에 관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의제를 위하여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때에 후대들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으로 훌륭한 교복을 만들어 입히도록 하여 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기어올려 올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제교육으로 빛나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교육부문을 맡은 책임인민으로서 당의 뜻을 앞장서서 실현

해나가는 제일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식료일용공업성 책임부원 강완실은 이번엔 학생들에게 안겨준 새 교복들마다에는 교복의 색깔과 형태를 세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도록 하시고 몸소 도안들과 견본들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고 하면서 당의 뜻을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해당 성들의 일군들까지 모두가 발이 닳도록 뛰고 전국의 방직공장들과 피복공장들의 총동원되어 모든것을 뒤로 미루고 교복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만가동하는 전매없는 조치들이 취해준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하여 대학, 전문학교 남학생들에게는 양복과 반소매셔츠, 여학생들에게는 양복과 반소매셔츠, 여침차지, 모자, 넥타이, 구두, 녀학생들에게는 양복과 반소매셔츠, 여침차지, 구두 그리고 평양시안의 대학, 전문학교 녀학생들에게는 끈적색치마와 교복의 흰색고리까지 더 공급되었으며 소학교인민들에게는 책가방, 학용품과 함께 남학생들에게는 양복과 반소매셔츠, 반바지, 운동신, 녀학생들에게는 양복과 반소매셔츠, 여침차지, 구두가 공급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정말 우리 학생들은 교마음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새 세대들로 되었다고 흥분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각급 당, 정권기관 일군들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두가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만은 꼭 새 교복을 입혀주시려고 그러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우리 학생들의 미래로운 어머니, 학부모이시라고 하면서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선진시대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

로 키워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김영배 평양건축종합대학 총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든 새 교복을 입은 대학안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 하면서 도시경영대학의 한 학생이 일군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당이 바라는 혁명인으로 꼭 준비하겠다고 마음다짐을 다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우리 원수님의 품은 나라 단장사들을 한몸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주고 어엿하게 내세워주시는 어머니들이라고, 원수님의 사랑을 받아안고 새로운 결의에 넘쳐있는 학생들을 더 잘 이끌어 그들모두를 당이 바라는 훌륭한 건축기술인재들로 키워겠다고 하였다.

김정숙사범대학 역사학부 학부장 정길식은 우리 대학생들모두가 한달한시미에 미남, 미녀가 될것은 정말 좋았다. 그야말로 온 대학이 환해지고 명절 분위기가 되고 하면서 새 교복을 입은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그들과 함께 교복을 입고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심정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대학생들을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키워나가겠다고 하였다.

전천상업전문학교 교장 문순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린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선 학생들을 보니 교정이 다 환해지는것 같았다. 젊고 독특한 색깔과 새로운 형식으로 만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묘로 학생이 된 내가 어떻게 새 교복에 어울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학생들 모두가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학생들 모두가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학생들 모두가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태천군 태천소학교 교장 백순영은 사랑의 교복을 입고 개학식을 하는 학생들의 기쁜얼굴 모습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학과 부형들이 나의 손을 잡고 온 나라 학생들이 다 이렇게 교복과 학용품을 받았는가고 감격에 겨워 물어보면서 모두가 눈물을 적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신입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 교마워 첫 수업이 끝난 다음 눈물을 흘리며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가슴뜨겁게 불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것을 보러 왔던 수많은 학부모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함께 부르는 눈물 없는 불수 없는 평정이 펼쳐졌다고 하면서 우리 새 세대들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어 복받은 아이들이라고 하였다.

새 교복을 받아안은 학생들도 저 저마다 격정의 목소리, 맹세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평성의학대학 제1학부 학생 정태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정말 세심하고 맑았다. 양복과 여침차지를 비롯한 여복과 겨울옷까지 일식으로 받아안고 누구나 감격에 겨워한다고 하면서 새 교복을 입으니 모두가 더 밝고 교와진것 같다. 공부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높은 성적과 과학기술성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관산농업대학 전문반 농학과 학생 김향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학생이 된 내가 어떻게 새 교복에 어울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학생들 모두가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학생들 모두가 새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말해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로동성 부원 장미경은 이번엔 소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았는데 그 모든것을 우리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모든 소학교인민들에게 다 안겨주셨다. 새 교복을 입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 하는 딸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 제도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하였다.

무산군 독수협동농장 농장원 강경희는 요즘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공부하고있는 딸이 보고싶어 학교에 자주 간다고 하면서 딸이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교복과 학용품, 신발을 사주려고 마음을 써왔다. 그런데 당과 국가에서 교복과 신발, 학용품을 안겨주어 걱정이 순간에 풀렸다. 정말 대를 이어 후대없이 이어지는 절세인민들의 후대사랑은 끝이 없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락랑구역 공업용품종합성 락랑 1공업용상업 판매원 최희희는 상점에 교복을 사려고 왔던 한 주민이 이렇게 나라에서 거저나 다름이 없는 값으로 새 교복을 공급해주셨으니 우리 원수님의 하늘과 같은 사랑에 눈물을 금할수 없고 로동당단체, 사회주의단체의 목소리들이 저절로 나오니 감정을 터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받들어 교복을 사려고 왔던 한 주민이 이렇게 나라에서 거저나 다름이 없는 값으로 새 교복을 공급해주셨으니 우리 원수님의 하늘과 같은 사랑에 눈물을 금할수 없고 로동당단체, 사회주의단체의 목소리들이 저절로 나오니 감정을 터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받들어 교복을 사려고 왔던 한 주민이 이렇게 나라에서 거저나 다름이 없는 값으로 새 교복을 공급해주셨으니 우리 원수님의 하늘과 같은 사랑에 눈물을 금할수 없고 로동당단체, 사회주의단체의 목소리들이 저절로 나오니 감정을 터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1.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후렴)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2.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돈을 주실줄은 그날까지 그날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 다그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위해 보내셨어요 (후렴)
3.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도 아들딸도 지덕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아버지심정으로 수령님이 보내셨어요 (후렴)

제일동포자녀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 해의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주제46(195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61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75억 6919만 390원에 달하게 되었다.

강산에 봄빛이 한껏 짙어간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건만 이 봄의 정서는 유다르다.

새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어디서나 보인다.

고상하고 산뜻한 대학생교복들도 멋이 있지만 나의 심리 특성을 맞게 만든 소학교학생들의 교복도 보기 좋다.

가 새와 새기를 이어으며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 짙따한 가사와 선율에 그토록 하얀 사연이 담겨진 명곡은 없을것이다. 세상에 자기의 수명을 아끼지 않고, 당의 품을 우리 자신이 짐으로 노래하는 인민이 언제 잊어보았는가.

이 노래로 되게 하는것인가. 생각을 더듬는 나의 머릿속에 이 노래와 함께 새겨지는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자욱자욱이 후대에게 머물렀다.

자신께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대한수님들의 후대사랑을 생각하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한

이 노래와할 또 하나의 후대사랑의 화원을 뜻깊은 올해의 4월 봄날에 활짝 펼쳐주신것이다.

아이들의 세계처럼 부러울것이 많은 세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부럼없다고 증거하는 노래는 이 땅의 후대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바로 후대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자기들의 행복은 영원할것이라는 드림없는 확신이다.

수필 4월의 노래

며칠전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피워올린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불꽃을 가슴에 새기며 취재길을 이어가던 나는 장대연덕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의 그 어느 창가에선가 울려오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울려왔기때문이다.

어찌 단숨에 오선지우의 가사와 선율이요만 하랴. 우리 당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우에 새겨지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 높이 울려갈 이 나라 축복받은 미래의 영원한 행복의 지평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너무도 귀에 익은 선율이였다. 하지만 우리 당의 미래사랑의 화원이 만발하는 이 봄날 그 노래는 왜서인지 더욱 유별난 격정으로 나의 가슴을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노래하러는것입니다.》

노래의 생명력은 그것이 안고 있는 진리성에 있다고 한다. 세상에 노래는 많아요 우리 조국에 울리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같이 온 나라 남녀로소

엔제인가 우리 나라에 왔던 서방의 한 기자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자를 보며 단번 물음을 멈추었다.

자 구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부러울것이 많아야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들한테는 아직 자가용차도 별장도 없지 않잖나?

그때 우리 인민이 터친 심장 의 고백은 얼마나 뜨거웠는가. 돈으로 살수 있는것이 뭐가 그리도 부러울것이었는가. 우리에게는 수령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세상천하에 부러울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강산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는 오늘도 변함없이 울린다. 우리 세대가 부러워 자란 그 노래를 오늘날 우리의 아들딸들이 부러워 씩씩하게 자란다.

과연 무엇이 이 노래를 세기와 새기를 이어 울리는 생명력

어제 단숨에 오선지우의 가사와 선율이요만 하랴. 우리 당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우에 새겨지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 높이 울려갈 이 나라 축복받은 미래의 영원한 행복의 지평이다.

장대연덕우에서 계속 울리는 사연같은 노래소리가 나에게 새 교복을 받아안은 온 나라 학생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우렁찬 교마음의 대항상으로 들려왔다. 저 노래와 함께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진리를 심장으로 깨닫게 해준 올해의 4월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영원한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는 어느 시인이나 작곡가의 작품이 아니라 온 나라 아이들과 조국의 미래를 품어안은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낳는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드는 유정한 내 조국의 4월 봄날이다.

이 노래와할 또 하나의 후대사랑의 화원을 뜻깊은 올해의 4월 봄날에 활짝 펼쳐주신것이다.

아이들의 세계처럼 부러울것이 많은 세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부럼없다고 증거하는 노래는 이 땅의 후대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바로 후대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자기들의 행복은 영원할것이라는 드림없는 확신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가사

어제 단숨에 오선지우의 가사와 선율이요만 하랴. 우리 당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우에 새겨지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더 높이 울려갈 이 나라 축복받은 미래의 영원한 행복의 지평이다.



* 만복을 타고난 행복동아들 *

전국의 소학교인민들이 새 교복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후대사랑이 깃든 고급당파류를 또다시 받아안았다.

당파류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서로서로 마주보며 기뻐하는 김정은주요학생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무엇 을 속삭일가?

알담의 강성조선의 모습이 비끼는 성격중마다에 5점꽃을 자랑스럽게 피워갈 결의들을 다지고있다고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셨을것이다.

전국의 유치원, 탁아소의 귀여운 어린이들과 예기들도, 조국의 한끝에 있는 섬마을분교의 마지막아이까지도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꽃향기속에 묻혀 함께 웃고있다.

그런가하면 열의 사진에서 대동강구역 열라소학교의

학생들이 당의 은정이 깃든 새 교복을 입고 국어수업을 받고있다. 아이들의 도량도량한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해준다.

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의 웃음을 지켜준 당과 조국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여와 가슴속에선 이런 심장의

웨침이 울려나온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달아준 이름은 서로 달라도 사회주의가 너희들모두에게 하나같이 달아준 이름은 행복동아로구나.

더 밝게 웃어라, 강산이 더 밝아지거.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창창한 미래가 너희들을 어서 오라 소리쳐 부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그은혜 찬생토록 잊지 않으리라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뜻깊은 날이 새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으로 하여 거리가 더욱 밝아지고 교정이 환해졌것만 같다.

그렇진대 아침처럼 새 교복을 입은 자식들의 튼튼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또 그와 더불어 가정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꽃피었나.

이런 생각을 안고 우리는 며칠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찾았다. 우리가 들린 곳은 2현관 45층 3호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것만큼 그들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아직도 꿈만 같음에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딸이 한달한시미에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새 교복을 받아안았으니 가정의 격정이 얼마나 크랴.

마침 오늘이대학생이라 우리는 이 집에서 남녀학생교복들을 다 볼수 있게 되었다. 남학생교복도 멋있었지만 녀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함께 우아한 치마저고리까지 공급되었다.

《지난해에 몸치수를 제고 신발문수를 적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멋진 새 교복을 받

아안으리라고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디. 새 교복을 받아안은 날 모두가 너무 좋아 환성을 올렸습니디. 몸에 꼭맞는 새 교복을 그대로 입고가는 동무들도 있었지만 나는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싶어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복을 정성다해 마련해준 당의 사랑은 진정 천만부모의 사랑보다 합당해 해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그날 눈물을 머금고 새 교복을 쓰다들던 김춘화녀성은 《난 너희들을 낳기만 했지 나라에서

서경준동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쏠리자 흐뭇한 감정과 함께 보답의 걸음이 아직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 슬피 시얼음이 끓어졌다.

그에서 이날 저녁 자식들과 함께 사진관에 들러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도 너희들도 매일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교마음의 은정을 순간도 잊지 말고 더욱 분발하고 하라.

이것이 어찌 한 교육자가정에 서만 꽃피던 이야기이랴. 우리는 심장으로 들었다. 날이 갈수록 더매만 가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에 일련단심 충성다해 보답해갈 온 나라 가정의 진정의 목소리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명훈

오늘이대 학생의 새 교복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장장 서경준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한말을 더 달랠수있습니다. 서경준동무의 딸인 서정순 학생이 기쁨에 겨워 하는 말이였다. 아들인 시현철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난 새 교복을 입고왔는데 거리에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자랑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 당과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품을 들였는가를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서경준동무는 비아비비 자랑을 늘어놓는다.

자식들이 교복을 받아안고 고은 날 부모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듯 뜨거워졌다. 새 교복들과 학안셔츠들, 치마저고리와 구두, 넥타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오만자루품을 넣는대지만 온 나라 학생들을 위해 그것은 색깔과 질이 더 기호와 취미까지 헤아려 새 교



